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7종 비교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서 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7종 비교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서 아

인 준 서

이서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 17종을 대상으로 하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국악 가창곡이 어느 정도 수록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학습활동에서 분석요소에 따라 국악을 반영하여 적합한 국악교육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악 가창곡을 장르와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장르별 악곡과 지역별 악곡을 분석한 뒤,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통해 국악 가창곡을 학습하는 활동에서 국악 교육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17종 교과서의 국악 가창 장르별 악곡의 수는 민요>창작동요>판소리>가곡>시조 순으로 많이 실려 있었으며 민요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교학사, (주)박영사, 성안당 3곳의 출판사는 시조를 다루지 않았으며 교학사와 비상교육은 창작국악 곡을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민요의 지역별 악곡 수에는 동부 민요 65곡, 경기민요 54곡, 남도민요 44곡, 서도민요 30곡, 제주민요 25곡으로 동부민요에 편중현상이 보였다.

셋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17종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국악의 특징 중 하나인 시김새를 각 곡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러보거나 발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도록 국악 가창곡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해서는 국악 가창곡에서 어느 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차별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 과목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나 문화적·사회적·역사적으로 포괄적인 국악교육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대상	2
3. 연구 제한점	4
4. 선행연구.....	5
II. 국악 교육.....	7
1. 국악교육의 필요성	7
2. 국악교육의 의의	9
3. 국악 교육과정의 변천	10
4. 국악교육 실태	18
III. 중학교 교과서의 국악가창 분석	19
1. 국악가창 분석을 위한 분류방법과 분류기준	19
2. 17종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분석	23
3. 국악가창 곡 분석	40
4. 분석결과 요약	63
IV. 결론	66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 교과서 목록.....	3
<표-2>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15
<표-3> 교육과정에 따라 국악교육이 시행되는 이유.....	18
<표-4>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국악가창 학습	19
<표-5>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관련 내용	20
<표-6> 국악 가창부분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21
<표-7> 국악 장르별 곡 수	23
<표-8> 민요 지역별 분류	24
<표-9> 경기민요의 악곡 수	26
<표-10> 남도민요의 악곡 수	28
<표-11> 동부민요의 악곡 수	29
<표-12> 서도민요의 악곡 수	30
<표-13> 제주민요의 악곡 수	31
<표-14> 판소리의 악곡 수	32
<표-15> 가곡의 악곡 수	34
<표-16> 시조의 악곡 수	35
<표-17> 창작 동요의 악곡 수	36
<표-18> 교과서의 가곡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40
<표-19> 교과서의 민요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44
<표-20> 교과서의 시조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53
<표-21> 교과서의 판소리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57

그림 목 차

<그림-1> 가곡의 16박과 10박의 정간보 장단 활동	42
<그림-2> 가곡의 10박의 음표 장단 활동	42
<그림-3> 가곡의 기본박과 부호, 음높이의 가락선이 제시된 활동.....	43
<그림-4> 시김새가 제시된 활동	49
<그림-5> 민요의 주요 떠는음과 꺾는 음	49
<그림-6> 체계적으로 시김새가 제시된 활동	50
<그림-7> 시김새의 차이점에 대한 활동	51
<그림-8> 과도에 비유된 육자배기토리의 가락 활동	52
<그림-9> 시조의 기본 장단 활동	54
<그림-10> 시조의 기본 장단과 가락선 활동	55
<그림-11> 무릎장단의 방법 사진으로 제시	56
<그림-12> 판소리의 자세	59
<그림-13> 악곡 속의 발림	60
<그림-14> 발림하며 노래 부르기	61
<그림-15> 판소리의 구성요소와 발림	6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제 7차 교육과정 국악영역은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영역이 더욱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서로 개선 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통과 문화에 소홀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현재 인성 및 창의성과 음악 역할의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과가 되도록 시도를 하고 있다.

전통이란 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로 미래를 창조 시켜 나가는 문화예술 속에 숨어 있는 흐름이다.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를 거치지 않고 미래로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기에 문화 창조에 있어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매체를 통해 경험해온 서양음악이 더욱 친숙하여 ‘국악은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일부는 방과 후 활동이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사풀제를 통해 학교 국악 교육 현장이 많이 극복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국악은 방과 후 활동으로 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국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접하게 하고 우리 전통 음악의 모습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담겨야 된다.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음악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게하며 국악을 좀 더 쉽게 체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에 따르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¹⁾ 이를 토대로 교수, 학습계획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능력 수준, 흥미도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하며 학습 내용과 수준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화,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등의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한다.

따라서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 부분에 끊임없이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7종 통합 교과서에서 음악의 표현영역 국악 가창부분을 비교하고 분석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국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가운데 국악가창 부분을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18p

학교 음악교과서 17종에 대하여 교과서의 가창 악곡의 구성을 분석한다.

넷째,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국악 가창곡을 분석하기 위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표현영역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국악 가창부분이 음악교육에 타당하고 다양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분석해 본다.

<표-1> 연구대상 교과서 목록

출판사	저자
교학사	강민선, 양은주, 한태동, 김선희, 류주옥
(주) 교학사	이홍수, 민경훈, 고영신, 유명국, 김일영, 윤해린
(주)금성 출판사	김용희, 임인경, 김신영, 최유진, 현경실, 오누리, 현경채
두산동아	최은식, 김대원, 박현숙, 권혜근, 강선영, 김주연, 하명진
(주)미래엔	장기범, 임원수, 홍종건, 윤성원, 김경태
(주)박영사	주광식, 채은영, 김주경, 최은아
비상교육	홍미희, 이동희, 정미, 김종건, 이승윤, 허유미
성안당	정옥희, 설창환, 이희종, 유대안, 이정원, 최청와
세광 음악 출판사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와이비엠	김미숙, 김혜선, 권혜인, 허수연
음악과 생활	양종모, 신현남, 김한순, 독고현, 황은주
(주)중앙교육	윤용재, 손철수, 남기홍, 지종문, 김태은, 이요한, 구정미, 정원경, 이주상, 김백희, 홍미리
(주)지학사	정길선, 유건석, 박경준, 황병숙, 강세연, 엄숙용

천재교육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
천재교과서	윤명원, 윤경미, 조성기, 최문희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홍진표, 노혜정, 김동수
현대음악	장보운, 곽은숙, 곽성원

3. 연구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7종을 분석함에 있어 표현영역 중 국악 가창부분만 해당되며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하여 모든 학습 영역을 분석하여 제시 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분석은 교과서별 가창 악곡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반영여부 분석은 기준표 내용에 따라 17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학습 활동부분만 분석한다.

3. 선행연구

김아름(2009)²⁾은 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 내용이 비교적 적절하게 되었으며 음악교육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음악을 폭넓게 수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악 교육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며 구체화되어 음악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보다 실천적 음악교육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주(2007)³⁾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의 구성이 체계화 되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세분화되고 내용체계 그리고 이해영역, 활동영역, 생활화영역을 통해 음악교육이 생활 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학급별로 제시되고 국악 부분의 교수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강조하였음이 분석되었다.

유진주(2010)⁴⁾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 전·후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비교하고, 각 교육과정의 항목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과 학습내용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김화정(2009)⁵⁾은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내용을 이해영역과

2) 김아름. 2009.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홍영주. 2007. 제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연구: 초등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유진주.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화정. 2009. 고등학교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동영역별로 분석하여 각 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교과서 별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각 교과서별 동일하지 않은 민요음계를 제시하기보다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을 학습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시김새의 정의와 내용을 정확히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내용을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선행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역별로 교과서를 비교하고 악곡 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국악의 음악적 요소를 비교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분석 기준을 제시하며, 2009 개정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부분에서 음악교육으로써 부족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고찰한다.

II. 국악 교육

1. 국악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이 왜 필요한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교사는 확신을 갖고 국악교육을 하게 되며,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된다. 국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된지 이미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형편이다.⁶⁾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그 음악이 잘 생겼든 못 생겼든, 그 음악이 뛰어나든 아니든 국악은 ‘우리’ 음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음악이다.

이미 서양음악 중심으로 한 세기 가까이 음악 교과가 운영되어 온 이 땅의 학교 교육에서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우리 음악을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있어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는 우리 음악을 서양 음악적 방법론으로 가르치고자하는 시도이다. 우리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형성된 시대와 가치관을 되짚어보고 어떠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 음악이 형성되었으며 제재곡이 된 음악의 특징을 어떤 개념과 용어로 설명하여야 하는가를 살피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에 뿌리를 둔 체계와 철학을 적용해야하며, 국악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현장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⁷⁾

따라서 이러한 서양음악 이론은 한국 음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넓게는 동양 여러 나라의 음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6) 권덕원 외 3명. 2009. 국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3p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국악, 서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56p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음악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음악에 있어서도 각기 독자적인 특징 밑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⁸⁾ 이처럼 하나의 전통을 그대로 각 나라에 맞게 특징을 인정하고 전통 음악 교육과 고유의 음악도 전승해가야 하는 것이다.

국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실용적 가치는 낮더라도 그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더욱 그 가치를 더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몇 사람 전문가들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부가 기울여야 할 노력임을 학생들에게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⁹⁾

8)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제 3-108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24

9) 권덕원의. 전개서. 3-4p

2. 국악교육의 의의

어떤 것이든 고유의 역사가 있으며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국악 또한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해왔고 현재도 전승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끊기 지 않으며 음악을 계승해왔다. 이처럼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전통 음악이다.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품고 있는 음악이며, 우리 민족 삶의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온 음악이다. 최근 100여 년간의 근대화 과정이 그 이전의 수천 년의 변천의 과정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최근 100년의 문화가 그 이전의 모든 문화를 대체해 버릴 수는 없다.¹⁰⁾

서양음악과 문물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국악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전통 음악이 쇠퇴되지 않는다. 앞으로 발전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우리 꿈나무 학생들도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국악에 대한 애정이 생길 것이다.

10) 상계서. 7-8p

3. 국악 교육과정의 변천¹¹⁾

1) 일제강점기 시기 국악교육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이다. 이 일제강점기의 음악교육은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암흑기로서 음악교육은 소위 ‘황국 식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악교육은 거의 찾아보기가 없고 단지 서양의 민요나 일본의 음악을 교육시키거나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국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서양음악을 위주로 한 음악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시대에는 국악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수요목기 시기 국악교육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미국 군정시대의 교육은 교수요목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음악교사가 거의 없었으며, 음악 교과서 역시 없었다. 이 교수요목에 따라 개발된 ‘중등 노래 교본’(1946), ‘중등악전 교과서’(1947) 등의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등은 노래 부르기와 음악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11)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 3-4p.
권덕원의. 국악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99p. 민경훈외. 2010. 음악교육학총론. 서울: 학지사. 185-186p. 장기범외. 2009. (주)미래엔 교과서 지도서. 서울: 미래엔 출판사. 해설서.4-5p
허화병. 2003. 중학교 국악교육의 회고와 전망. 한국국악협회. 국악교육 1p. 요약정리

3) 제 1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제 1차 교육과정(1954~1963)에서는 교육법상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을 통해 ‘민족의 고유문화 계승·양양하는 전통·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악과 내용체계가 거의 제시되지 않아, 음악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민족 문화 계승이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구 음악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음악교과서 내용을 보면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으로 되어 있을 뿐, 국악은 보여 지지 않는다. 국악교육은 단지 민요 몇 곡을 부르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4) 제 2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1963년에 공포된 제 2차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제 1차 음악과 교육과정보다는 약간 상향되어 있으나 국악교육의 내용은 전체적인 음악 교육내용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내용도 대부분 감상에 의존할 뿐 실제 음악 실기의 내용은 민요를 부르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를 보면, 전체 내용의 6%가 국악의 내용으로 미미하게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제 3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이 교육과정은 1973년에 개발되어 이후 약 9년간 사용되었다. 경험중심 교육사조가 교육의 수준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후 개발된 것인데, 당시는 이른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 2차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그리고 음악과 목표에서 ‘음악성’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유산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이 추가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이후 그 지침을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민요’ ‘우리나라 리듬악기’ 등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나타난 것도 이 교육과정에서 부터이다.

6) 제 4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1981년에 공포된 제 4차 교육과정상 국악교육내용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공통적으로 지도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풍토상 국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로 볼 때 이 시기의 국악교육은 제자리걸음 상태로 걷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의 내용을 보면, 13%로서 전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적어졌고, 이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의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반면, 서양음악교육의 일변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제 5차 교육과정시기 국악교육

1987년에 공포된 제 5차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가창에서는 민요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기악에서는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계로 이루어진 음악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감상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비교 감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요, 구군악,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의 음악을 감상하고 우리나라 악기의 음색과 그 배합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감지하도록 되어있다.

8) 제 6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1992년에 공포된 제 6차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국악 교육의 발전적인 하나의 획기적인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국악적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창에서는 각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민요를 부르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악에서는 장구를 학습하도록 하고, 단소를 학습함과 동시에 장단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장단을 학습함으로써 국악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9) 제 7차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1997년에 공포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음악과 성격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그 성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해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 여러 가지 민요의 음계, 긴·자진 형식, 엮음 형식,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음악적 특징 이해, 연음형식, 산조

곡, 다양한 악기와 연주형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창이나 기악, 창작에서는 서양음악과 더불어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국악 교육도 통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10)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2007년 2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실현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음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정되었다. 국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측면은 ‘활동’ ‘이해’ ‘생활화’의 각 영역에 국악 관련 지침을 고루 배치한 것에 나타난다. 특히 ‘생활화’ 영역에서 ‘우리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는 국악의 질적 활용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영역별로 고루 국악 지도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전의 ‘전통음악’이라는 용어 대신 ‘국악’이라는 용어를 노출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새롭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악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의 틀은 자리 잡고 있되, 표현영역에서 ‘민요, 판소리의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부른다.’와 감상영역에서는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대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활화영역에서는 ‘우리음악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처럼 개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역사와 보존 그리고 친근감으로 더 깊게 우리 국악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교육학적 특징	음악교육학적 특징	국악교육의 특징
1차 (1955)	·교과중심교육과정 ·전통적 교육과정 지속됨.	·기능연마 강조 ·‘음악의 생활화’ 영역 제시.	·국악교육에 관한 내 용이 거의 없음.
2차 (1963)	·경험중심교육과정 ·표면상으로는 ‘아 동중심교육관’ 강 조하였지만, 실제 로는 ‘사회적 필 요’ 중심	·‘음악의 생활화’ 영역 없어짐. ·아동의 경험과는 거 의 관련이 없음.	·국악교육에 관한 내 용이 거의 없음.
3차 (1973)	·학문중심교육과정 ·일부 교과에서는 ‘개념중심’ 학습 시도하였지만, 대 부분의 교과에서 반영하지 못함.	·교과서의 노래에서 정치적 영향 나타남 (경제 부흥, 국민정신, 새마을 운동에 관한 노래들이 대폭 증가 함).	·우리나라 음계, 악 기, 음악 등에 관한 내용 제시됨
4차 (1981)	·인간중심교육과정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인간성 회 복 운동’의 영향을	·기본능력 강조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영향 일부 받지만, 실 효는 나타나지 않음	·국악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만 언급

	받음.		
5차 (1987)	·교육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건강 성, 자주성, 창조 성 도덕성)	·가창, 기악, 창작을 표현 영역에 포함 ·새로운 음악교육학적 이론이 등장하지만, 현실과의 괴리 표출 됨.	·국악감상 및 가창 영역에서 다소 향상
6차 (1992)	·교육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건강 성, 자주성, 창의 성, 도덕성)	·이해 영역 신설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음악교육학 이론이 영 향을 미침(개념적 접 근, 포괄적 음악성, 심 미적 교육론 등).	·장단 지도에 관한 구체적 언급 시작 ·교과서 국악의 비중 이 크게 증가함.
7차 (1997)	·교육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개성 추구, 창의성, 진 로 개척, 가치 창 조, 공동체 발전)	·‘활동’ 강조 ·개념 이해 영역 구체 화 ·6차에서 일부 수용되 었던 음악교육학적 이 론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됨. ·수행평가 강조 ·일부 유럽 교수법의	·기본 장단 및 변형 장단 제시, ·민요음계 및 시김새 제시, ·5음계 가락 짓기 제시.

		영향 (코다이, 오르프 등)	
2007 개정	·교육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개성 추구, 창의성, 진로 개척, 가치 창조, 공동체 발전)	·‘활동’강조 ·음악적 개념 이해 중시 ·음악적 생활화 영역 강조 ·세계음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중시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내용 제시, ·민요음계 및 시김새 제시 장단에 관련된 구체적 개념 지도, ·생활에 관련된 놀이 노래 제시.
2009 개정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이해 영역의 음악 활동과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대 영역에서 삭제. ·성취 기준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활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제시.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내용 제시, ·민요음계 및 시김새 제시 장단에 관련된 구체적 개념 지도, ·생활화에 우리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추가.

4. 국악교육 실태

국악교육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학교에서 국악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국악교육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악 성과지표 분석연구 조사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표-3> 교육과정에 따라 국악교육이 시행되는 이유

이유	빈도수	비율
우리 학교는 국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33	41.25
국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충분함	9	11.25
국악실이나 국악기 등 국악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함	12	15.00
국악 교육을 위한 오디오 및 영상 자료 등이 충분함	15	18.75
학부모들이 국악교육 시행을 좋아함	0	0.00
학생들이 국악교육에 흥미를 느끼고있음	12	15.00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악교육이 충실히 시행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1.25%가 ‘우리 학교는 국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18.75%가 ‘국악교육을 위한 오디오 및 영상자료 등이 충분함’을, 15%가 ‘국악실이나 국악기 등 국악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함’, ‘학생들이 국악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즉 ‘학교가 인식하는 국악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충분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흥미’가 국악교육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¹²⁾

12) 국립국악원. 2012. 국악 성과지표 분석 연구: 국악교육 현황 및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 41-51p. 요

Ⅲ. 중학교 교과서의 국악가창 분석

1. 국악가창 분석을 위한 분류방법과 분류기준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009 개정 17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을 분석하기 위해 악곡별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분류한다. 즉, 국악 가창곡을 악곡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국악 가창곡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본다.

국악 가창곡이 단순한 수치에 의한 분석뿐만 아니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준거하여 기본적인 음악 이해요소와 국악과 관련된 내용 요소만을 표로 제시하였다.(표-4, 표-5)

<표-4>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국악가창 학습¹³⁾

학년	학군별 성취기준
중학교 1,2,3학년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약

13) 교육과학기술부. 전개서 12-16p

5. 교수·학습 방법

음악과 교수·학습은 모든 영역의 학습 활동에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수준, 흥미도, 현실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가. 교수·학습 방향

(1) 교수·학습 계획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능력수준, 흥미도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학교급별·학년군별·영역별 연계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이 음악 학습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8) 음악 교과와 **타 교과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나. 학교급별 지도

(2) 중학교

중학교 학생의 호기심과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 표현 능력과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게 함으로써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14) 상계서. 8p

<표-6>은 『국악용어 해설집』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법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국악의 장르는 기악과 성악으로 분류된다.¹⁵⁾ 그리고 성악에서 민요, 잡가, 판소리, 시조, 가곡, 창작동요로 나뉠 수 있는데,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7종 교과서에는 민요, 판소리, 시조, 가곡, 창작동요를 다루고 있으나 전통국악 가창곡인 가곡과 민요, 시조, 판소리로 네 장르만 구별하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6> 국악 가창부분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장르	학습활동
가곡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민요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다.
시조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판소리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에서는 <표-6>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15) 백대웅. 2008. 국악용어 해설집.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436-438p. 인용.

중 중학교 국악 관련 내용을 적용하여 국악 가창 부르기를 장르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6>에서 제시한대로 국악가창 부분과 관련시킬 수 있는 분석요소만을 교과서의 활동 부분을 참고하여 분석기준인 <표-6>을 만들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할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표현 영역에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6>에 준거하여 표현영역 국악 가창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국악 반영여부를 분석해 볼 것이다. 국악 부분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참고곡 또는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있는 국악 가창곡들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곡을 제재곡으로 본다.

둘째, 제재곡의 악보는 정간보와 오선보악보도 포함하지만, 발성을 위한 연습곡의 일정한 부분만을 제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완전한 곡이 아닌 악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 <표-6>의 세부적인 분류방법은 가창부분의 장르별로창작동요를 제외하고 전통악곡들로만 분류하였다.

넷째, 17종 교과서의 부록에 있는 악곡은 제외한다.

다섯째, 국악 가창곡 분석에는 17종 교과서에서 활동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중복되는 것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2. 17종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분석

1) 국악 가창 장르별 곡 수 분류

<표-7> 국악 가창 장르별 곡 수

교과서 분류	가창				
	가곡	민요	시조	창작동요	판소리
교학사	2	10	1	0	1
(주)교학사	1	11	0	3	1
(주)금성 출판사	2	12	1	4	2
두산동아	2	14	1	4	2
(주)미래엔	2	11	1	2	2
(주)박영사	1	12	0	3	1
비상교육	2	10	1	0	3
성안당	1	16	0	4	2
세광음악 출판사	1	15	1	9	1
와이비엠	1	14	1	13	1
음악과생활	2	12	1	3	2
(주)중앙교육	1	9	1	5	3
(주)지학사	1	12	1	5	1

천재교육	2	10	2	10	2
천재교과서	1	17	1	10	1
도서출판 태성	1	16	1	9	3
현대음악	1	17	1	12	3
합계	24	218	15	96	31

장르별로 분석해본 결과, 17종 교과서 모두 민요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중 천재 교과서와 현대음악 교과서는 민요곡이 17 곡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었다. 반면에 교학사와 비상교육은 창작동요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교학사, (주)박영사, 성안당 3 곳의 출판사는 시조를 다루지 않았다.

<표-8> 민요 지역별 분류

지역 교과서	경기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
교학사	2	2	4	1	1
(주)교학사	5	3	1	1	1
(주)금성 출판사	3	3	3	2	1
두산동아	3	3	5	2	1
(주)미래엔	3	3	3	1	1

(주)박영사	1	3	4	2	2
비상교육	3	1	4	1	1
성안당	6	1	5	3	1
세광음악 출판사	3	2	5	2	3
와이비엠	4	3	4	1	2
음악과생활	3	3	3	1	2
(주)중앙 교육	3	2	3	1	0
(주)지학사	2	2	5	2	1
천재교육	2	2	3	1	2
천재교과서	4	4	5	2	2
도서출판 태성	4	4	3	4	1
현대음악	3	3	5	3	3
합계	54	44	65	30	25

민요를 지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동부민요 65곡과 경기민요 54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서도민요 30곡, 제주민요 25곡으로 동부민요와 경기민요에 비해 낮게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민요의 경우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의 경우 3곡씩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대부분 1곡에서 2곡을 다루고 있었지만 (주)중앙 교육의 경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표-7>, <표-8>을 보면, 국악 가창은 장르별로의 편중현상 뿐 만 아니라 민요에서도 지역별로 악곡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에 있는 민요에 많은 곡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악 교육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얼을 반영하며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국악의 장르별로 고루 다루어 새로운 악곡들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여야겠다.

<표-9> 경기민요의 악곡 수¹⁶⁾

교과서 민요	교 학 1	교 학 2	금 성	두 산	미 래	박 영 사	비 상	성 안 당	세 광	와 이 비	음 악 과	중 앙	지 학 사	천 재 1	천 재 2	대 성	현 대	합 계
한강수타령	○		○	○	○		○		○	○	○			○	○		○	11
널리리야			○				○		○		○	○	○				○	7
군밤타령	○	○	○		○					○		○						6
아리랑					○			○				○	○				○	5
훤훤이				○						○							○	3
경복궁타령								○									○	2
구아리랑															○		○	2
도라지타령								○							○			2
자진방아타령				○													○	2
천안삼거리								○						○				2

<표-10> 남도민요의 악곡 수

교과서 민요	교과서		금 성	두 산	미 래	박 영 사	비 상	성 안 당	세 광	와 이 비	음 악 과	중 앙	지 학 사	천 재 1	천 재 2	태 성	현 대	합 계	
	1	2																	
진도아리랑	○	○	○	○	○	○	○		○	○	○	○	○	○	○	○	○	○	16
강강술래	○			○	○					○			○	○				○	7
자진 강강술래				○	○	○					○						○		5
자진농부가			○						○		○						○		4
새타령								○										○	2
콩꺾자 콩꺾자												○				○			2
깡투리타령						○													1
간·자진 뱃노래 거문도 뱃노래		○																	1
농부가			○																1
액막이타령																	○		1
장장짚세기																○			1
정선쥬음 아리랑		○																	1
청어쥬자																○			1

<표-10> 남도민요의 경우, 가장 많이 불린 ‘진도아리랑’은 (주)박영사, 성안당 교과서를 제외한 16권(94.1%)에 수록되어 있었다. ‘강강술래’는 7권(41.1%)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자진강강술래’ 5권(29.4%), ‘자진농부가’는 각 4권(23.5%)에 수록되어 있었다. 나머지 다양한 악곡은 대체적으로 한 두곡씩 수록 되어있었다.

<표-11> 동부민요의 악곡 수

교과서 민요	교 학 1	교 학 2	금 성	두 산	미 래	박 영 사	비 상	성 안 당	세 광	와 이 비	음 악 과	중 앙	지 학 사	천 재 1	천 재 2	태 성	현 대	합 계
강원도 아리랑			○	○		○	○		○	○	○			○	○	○	○	11
용혜야		○	○	○			○	○	○	○	○			○			○	11
상주모심기	○			○	○						○	○			○		○	7
통영개타령	○		○		○		○	○					○	○				7
쾌지나 칭칭나네	○				○								○		○	○	○	6
밀양아리랑				○		○							○			○	○	5
신고산타령				○		○			○	○								4
뱃노래							○	○		○								3
한오백년	○							○	○									3
위음아리랑												○	○					2

<표-15> 가곡의 악곡 수

교과서 가곡	교 학 1	교 학 2	금 성	두 산	미 래	박 영 사	비 상	성 안 당	세 광	와 이 비	음 악 과	중 앙	지 학 사	천 재 1	천 재 2	태 성	현 대	합 계
남창가곡 우조 동창이 밝았느냐	○	○	○		○	○	○		○		○	○		○		○	○	12
남창가곡 편락 나무도			○	○			○	○		○	○				○			7
여창 계면 편수대엽 모란은	○				○									○				3
남창가곡 연락 벽사창이													○					1
남창가곡 바람은				○														1

<표-15> 가곡의 경우, 남창과 여창으로 나뉘는데 남창 우조 ‘동창이 밝았느냐’는 12권(50%)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남창가곡 편락 ‘나무도’는 7권(29.1%)에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창 계면 편수대엽 모란은’의 경우, 가곡 중 유일한 여창 가곡이었으며 3권(12.5%)으로 남창 가곡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16> 시조의 악곡 수

교과서 시조	교 학 1	교 학 2	금 성	두 산	미 래	박 영 사	비 상	성 안 당	세 광	와 이 비	음 악 과	중 앙	지 학 사	천 재 1	천 재 2	태 성	현 대	합 계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								○		○	○	○		○	○	○	8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	○	○		○							○				5
평시조 북천이 맑다커늘														○				1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								1

<표-16> 시조의 경우,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는 8권(47%)으로 시조 악곡 중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는 5권(29.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천재1(천재교육)에서는 ‘북천이 맑다커늘’, 와이비(와이비엠)에서는 ‘태산이 높다하되’를 수록하였다.

<표-17> 창작 동요의 악곡 수

창작	교과서	교학 1	교학 2	금성	두산	미래	박영사	비상	성안당	세광	와이비	음악과	중앙	지학사	천재 1	천재 2	태성	현대	합계
산도깨비							○		○	○	○	○	○	○	○	○		○	9
가시버시			○						○		○			○		○	○	○	7
소금장수							○		○					○		○		○	5
우리장단 배워보자						○	○		○				○					○	5
타령											○			○	○	○		○	5
임금님의 행차											○				○	○		○	4
고사리꺾자										○							○	○	3
널리리야					○											○		○	3
대문놀이										○							○	○	3
청어엮기										○							○	○	3
군밤타령																○		○	2
남누리 북누리										○	○								2
북천이			○										○						2
콩새야 팔새야												○				○			2
홀로아리랑															○		○		2
가얏고										○									1

강강술래																			○	1	
개구리소리				○																1	
개구리타령																				○	1
귀인																				○	1
꿈보따리 희망보따리																				○	1
내별명																				○	1
대금소리																				○	1
동창이																				○	1
만파식적																				○	1
무말랭이																				○	1
무어별																				○	1
문지기문지기 문열어라																				○	1
바퀴짜기																				○	1
부용화																				○	1
뷰티폴코리아																				○	1
산유화가																				○	1
새쫓는소리																				○	1
서생원과 평생원																				○	1
십대애로가																				○	1

<표-17> 창작 동요 곡의 경우, ‘산도깨비’가 9권(52.9%)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은 ‘가시버시’가 7권(41.1%)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금 장수’, ‘우리장단 배워보자’는 각 5권씩(58%)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임금님의 행차’는 4권(23.5%)에 수록되어 있었다.

2) 국악 가창곡 분석 결과

17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 악곡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가곡, 각 지역 민요, 시조, 판소리, 창작 동요들은 주로 1, 2권씩 실려 있었으며 교과서마다 다양한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천재2(천재교과서)에는 각 지역의 민요들 중 생소하게 보이는 악곡들이 있었다. 동부 민요 ‘돈돌라리’와 서도 민요 ‘동그랑땡타령’이 있었는데, ‘돈돌라리’는 정월 대보름날 북청 사자 놀음을 할 때 부르는 함경도 민요이고 자진타령 장단과 함께 사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광복의 염원을 ‘동틀 날’, 즉 ‘돈돌라리’라는 가사로 불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그랑땡타령’은 제목과 동일한 동그랑땡 전을 묘사하였고 주로 잔치나 놀이판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서도 민요로써 자진타령 장단과 함께 쓰였다. 이 곡은 주로 직업을 주제로 한 경상도의 향토민요이기 때문에 서도 지역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널리 불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제주민요의 경우, 대부분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와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수록되어 있었고 특이한 제주도 방언의 노랫말이 많아 이국적인 느낌으로 악곡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판소리는 대부분 ‘춘향가 대목’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적벽가 대목’이나 ‘심청가 대목’의 판소리 가창부분을 다루고 있는 출판사는 없었다.

따라서 국악 가창 악곡의 내용이나 그 곡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지역의 정

보를 함께 제시하고 장르마다 보다 더 다양한 악곡들을 추가한다면 국악교육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악가창 곡 분석

1) 17종 교과서 활동에 의한 분석

<표-18>에서 <표-21>는 중학교 17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장르별 국악 학습 활동 내용을 <표-6>을 토대로 공통되는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18> 교과서의 가곡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활동	출판사	국악곡 명
가곡의 시김새를 살려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불러보자.	교학1	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엽)
	교학2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금성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두산	바람은
	미래엔	초수대엽
	박영사	우조 초수대엽
	비상	초삭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천재1	동창이 밝았느냐
	천재2	편락 '나무도'
	태성	동창이 밝았느냐
	현대	우조 초삭대엽

10박 장단과 16박 장단을 쳐보고 장단에 맞추어 불러보자.	금성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두산	바람은
	미래엔	초수대엽
	비상	초삭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편락 나무도
	세광	초삭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음악과	가곡 '편락'
	지학사	남창가곡 언락
	천재1	동창이 밝았느냐
		모란은 황중왕이요
천재2	편락 '나무도'	
태성	동창이 밝았느냐	
가락선의 흐름을 생각하며 초장을 불러보자.	교학2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세광	초삭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지학사	남창가곡 언락

<표-18>의 가곡장르 활동부분의 경우 17종 음악 교과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활동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곡 부분의 “10박 장단과 16박 장단을 쳐보고 장단에 맞추어 불러보자.”와 “가곡의 시김새를 살려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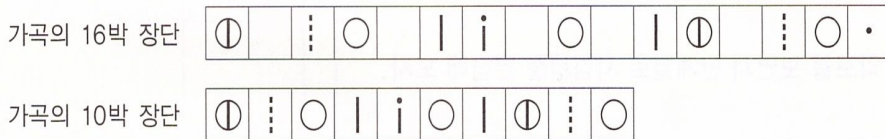
“10박 장단과 16박 장단을 쳐보고 장단에 맞추어 불러보자.” 활동에서 공통적인 악곡의 경우, 대체적으로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와 <편락 나무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지학사에는 <언락>, 천재교육에는 <모란은 황중이요>에 구성되어 있었다.

“가곡의 시김새를 살려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불러보자.”의 활동에서 공통적인 악곡의 경우,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가 교학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와 (주)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도서출판 태성, 현대음악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두산동아에서는 <바람은>, 음악과 생활과 천재교과서에서는 <편락>에 구성되어 있었다.

“가락선의 흐름을 생각하며 초장을 불러보자.”의 활동에서는 (주)교학사와 세광출판사, 지학사에서만 활동을 다루었으며 (주)교학사와 세광출판사는 <초수대엽 동창이>에 구성되어 있고 지학사에서는 <언락>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1> 가곡 16박과 10박의 정간보 장단 활동

1. 가곡의 장단에 대해 알아보고, 가곡 ‘우조 초수대엽’을 듣고 따라 불러 보자.



<그림-2> 가곡 10박의 음표 장단 활동

2 가곡 장단을 쳐 보고, 장단에 맞추어 초장을 불러 보자.



<그림-1>의 현대음악 교과서와 <그림-2>의 천재교과서의 활동과 같이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세광출판사, 음악과 생활이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간략하게 16박 장단의 부호를 보며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시는 되어 있지만 노래를 부르며 악곡과 장단의 흐름을 함께 이해하도록 추가적인 설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림-3> 가곡의 기본박과 부호, 음높이의 가락선이 제시된 활동

활동 5 가곡 '동창이 밝았느냐'의 초장을 장단과 시김새에 유의해서 불러 보자.

박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부호	⊙	⊗	⋮	○	⊗			⊗	○	⊗		⊙	⊗	⋮	○	()
가사	동차-		아아 양	이	이	이	이히	이	이	이	이	밝아		아		아
음 높이 가 락 선																

박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부호	⊙	⊗	⋮	○	⊗			⊗	○	⊗		⊙	⊗	⋮	○	()
가사	아아	아	아 하 하	느							으 으 으	냐	아	아△-		
음 높이 가 락 선																

※ 가곡은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시조시를 얹어 부를 수 있어, 오늘날의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와 유사하다.

<그림-3>의 도서출판 태성 교과서는 박자, 부호, 가사, 음높이를 인지하고 악곡의 흐름을 보며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가곡을 이러한 악보로 제시하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지므로 다른 교과서들로 이렇게 악보를 제시하면 좋겠다.

<표-19> 교과서의 민요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활동	출판사	곡명
지역의 특징에 맞게 시김새를 살려 민요를 불러보자.	교학1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
		상주모심기 소리
	교학2	몽금포 타령
		진도아리랑
	금성	몽금포 타령
		강원도아리랑
	두산	농부가
		자진방아타령
		한강수타령
		너영나영
		강강술래
		몽금포타령
		상주모심기
		진도아리랑
	미래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박영사	진도아리랑
		오돌또기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해주아리랑
		자진강강술래
	비상	풍년가
		청춘가
		몽금포타령
		강원도아리랑
	성안당	진도아리랑
		수심가
		태평가
		싸름
한오백년		
새타령		
세광	닐리리야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진도아리랑	
	몽금포타령	

		너영나영	
	와이비엠	자진강강술래	
	음악과		닐리리야
			싸름
			진도아리랑
			부여바심소리
			자진농부가
	중앙		진도아리랑
			상주모심기
			몽금포타령
	지학사		몽금포타령
	천재1		천안삼거리
			강원도아리랑
			몽금포타령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천재2		한강수타령
			장장질세기
			진도아리랑
			몽금포타령
			오돌또기
	태성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오돌또기
			자진배따라기
			긴자진농부가
	현대		한강수타령
			몽금포타령
		새타령	
		쾌지나칭칭나네	
		오돌또기	
		진도아리랑	
		상주모심기	
		강강술래	
메기고 받는 소리로 나누어 민요를 불러보자.	교학1	강강술래	
		강강술래	
		한오백년	
		쾌지나칭칭 나네	
	교학2	옹헤야	
		몽금포타령	
		진도아리랑	
		긴·자진 뱃노래	
	금성	옹헤야	
		금다래꿈	

		강원도아리랑	
		농부가	
	두산		자진방아타령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박영사		강원도아리랑
	비상		옹혜야
	성안당		옹혜야
	세광		옹혜야
			해주아리랑
	음악과		부여 바심 소리
	중앙		진도아리랑
			옹혜야
	지학사		몽금포타령
			너영나영
			강강술래
	천재1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천재2		너영나영
		콩꺾자 콩꺾자	
		깨지나 칭칭나네	
태성		강원도아리랑	
		자진강강술래	
현대		밀양아리랑	
지역의 특징에 맞게 장단에 맞추어 민요를 불러보자.	교학1	강강술래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교학2	풍년가	
		진도아리랑	
		긴·자진 뱃노래	
		오돌또기	
	금성	옹혜야	
		널리리야	
		군밤타령	
		싸름	
		강원도아리랑	
		농부가	
	두산	자진방아타령	
		너영나영	
		강강술래	
		몽금포타령	

		상주모심기
		옹헤야
	미래	진도아리랑
		아리랑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해주아리랑
		한강수타령
		너영나영
		상주모심기
	박영사	오돌또기
		진도아리랑
		자진강강술래
		강원도아리랑
		몽금포타령
		까투리타령
		신고산타령
		너영나영
	비상	뱃노래
		너영나영
		몽금포타령
	성안당	태평가
		도라지타령
		한오백년
		새타령
		너영나영
	세광	한강수타령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자진농부가		
해주아리랑		
오돌또기		
음악과	닐리리야	
	자진강강술래	
	너영나영	
중앙교육	강원도아리랑	
	아리랑	
지학사	닐리리야	
	몽금포타령	
	강강술래	
	통영개타령	
천재1	천안삼거리	
	강원도아리랑	

		몽금포타령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천재2	나물타령
		상주모심기
		한강수타령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
	태성	액막이타령
		널리리야
		긴자진농부가
	현대	너영나영
		강원도아리랑

<표-19>의 민요장르 활동부분의 경우, 17종 음악 교과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활동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요 부분에서는 “지역의 특징에 맞게 장단에 맞추어 민요를 불러보자.”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시김새를 살려 민요를 불러보자.”, “메기고 받는 소리로 나누어 민요를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의 특징에 맞게 시김새를 살려 민요를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많은 교과서들이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었으나 (주)미래엔에서는 <진도아리랑>, 지학사에서는 <몽금포 타령> 한곡씩만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특징에 맞게 장단에 맞추어 민요를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또한 대체적으로 많은 교과서들이 다양한 곡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중앙교육에서는 <아리랑> 한곡만이 다루고 있었다. “메기고 받는 소리로 나누어 민요를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대부분 악곡에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표기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명확하게 활동부분에 언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4> 시김새가 제시된 활동

활동 2 서도 민요의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음을 끌어 올려서 밀듯이 소리 낸다.
 장 산 꽃 마 루 - 에 - - -
 →음을 끌어내리듯이 꺾어서 소리 낸다.
 →떠는소리로 잘게 떨어져 소리 낸다.
 에 헤 요 - 에 헤 요 - 에 헤 요 - - -

떠는소리
 서도 민요: 목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끊어지는 느낌으로 떨어 준다.
 남도 민요: 굽게 떨어져 소리 낸다.

두산동아 <몽금포 타령>의 경우, 부분적인 악곡을 제시하여 꺾는 음과 떠는 음을 구별하고 시김새의 표현을 이해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그림-4). 가장 비슷한 구성으로는 현대음악이 있으며 대부분 주요 음계와 함께 두산동아 교과서처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천재교과서에는 활동에 ‘받는 소리에 나오는 시김새를 살려 풍부한 창법으로 노래 불러 보자.’로 언급하고 있을 뿐 전혀 시김새에 대한 이해를 돕지 않고 악곡에서도 시김새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림-5> 민요의 주요 떠는음과 꺾는 음

활동 1 남도 민요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불러 보자.

떠는소리 꺾는소리

(주)미래엔의 <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 경우에는 두 가지의 곡을 함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도 주요 음인 떠는 음과 꺾는 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시김새의 특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남도민요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그림-5).

<그림-6> 체계적으로 시김새가 제시된 활동

활동 2 '자진강강술래'의 구성음을 알아보고 시김새를 연습해 보자.

▶ 구성음: '자진강강술래'는 남도 민요로, 떠는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떠는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로부터 4도 아래의 음을 짧게 떠는 소리(요성) 작은 손동작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준다.

평으로 내는 소리: 장식을 없이 내는 평평하고 안정된 소리 손등을 위로 한 후 직선 방향으로 뻗는다.

꺾는소리: 중심음으로부터 3도 위의 음을 짧게 내고, 끝어 2도 음으로 꺾어 내리는 소리 ①에서 ②로 꺾어 내린다.

▶ 시김새 연습

① 떠는소리(요성) 연습: 받는 부분의 선율에 요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해 불러 보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② 요성이 없을 때 ③ 요성이 있을 때

강 가양 술 래 강 가양 술 래

④ 꺾는음, 흘러내리는 음, 올리는 음 연습: 모음을 바꿔 가며 연습한 후 꺾는소리의 시김새를 잘 표현해 보자.

⑤ 꺾는음 ⑥ 흘러내리는 음 ⑦ 올리는 음

아~ 강 가양 술 래 이~ 강 가양 술 래

오~ 강 강종다 술래나들자 어~ 강 가양 술 래

⑧ 시김새를 살려 선율 진행 연습: 다음 악보에 나타난 시김새를 잘 표현하여 구성지게 불러 보자.

아~ 어~ 이~ 오~ 이~ 오~ 우~ 오~ 어~

⑨ 다음 메기는소리의 선율을 익히고 가사를 바꿔 불러 보자.

강 강 종 다 술 래 나 들 자

(주)박영사의 자진강강술래 경우, 학습 활동에는 '시김새를 연습해보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학습 목표에 '시김새를 살려 구성지게 부를 수 있다.'로 명

시되어 있다(그림-6). 활동을 보면 시김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김새를 연습할 때, 떠는 소리, 꺾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올리는 소리를 부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림-7> 시김새의 차이점에 대한 활동

활동 2 두 가지 형태의 '풍년가'를 불러 본 후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 시김새란?

선율의 앞이나 뒤에서 음을 꾸며 주는 장식음 또는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뜻하는 용어

시김새가 없는 가락	시김새를 넣은 가락
<p>풍 년 -이 왔 -네</p>	<p>풍 년 -이 왔 -네</p>
<p>풍 년 -이 왔 -네 -</p>	<p>풍 년 -이 왔 -네 -</p>
<p>금 수 - 강 산 -에 -</p>	<p>금 --수 - 강 산-에 -</p>
<p>금 --수 - 강 산-에 -</p>	<p>금 --수 - 강 산-에 -</p>
<p>풍 년 이 왔 --네</p>	<p>풍 년 이 왔 --네</p>

(주)박영사의 경우, 시김새가 없는 가락과 시김새를 넣은 가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7). 시김새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불러보도록 구성은 잘 이루어져 있으나 시김새의 특징이나 지

역에 대한 특징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주)박영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는 체계적으로 시김새의 유무에 따라 불러보도록 이루어진 학습 활동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림-8> 파도에 비유된 육자배기토리의 가락 활동

표현하기

1. 육자배기토리를 이해하고 남도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하자.

떠는 소리 겪는 소리

미 술 라 시 레

도움말

남도 민요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민요로 가락이 매우 구성적이다. 굵게 끊고 끊어 주고 평으로 내는 소리가 특징이다.

가 새 가아 날
새 아 든 다

<육자배기토리 가락의 윤곽을 파도에 비유한 그림>

성안당의 경우에는 시김새를 바다의 파도로 비유하여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며, 파도를 보면서 음의 높이나 굴림 음을 묘사하여 특이하게 수록하고 있다(그림-8). 그리고 주요 음계에 떠는 소리와 겪는 소리를 함께 제시하며 ‘도움말’로 남도민요의 특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다.

<표-20> 교과서의 시조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활동	출판사	국악곡 명
5박과 8박 장단에 맞춰 불러보자.	교학1	동창이 밝았느냐 (평시조)
	금성	청산리 벽계수야
	두산	청산리 벽계수야
	비상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세광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음악과	동창이 밝았느냐
	지학사	동창이 밝았느냐 평시조
	천재2	동창이 밝았느냐
	태성	동창이 밝았느냐
	현대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시김새를 연습하여 초장을 불러보자.	교학1	동창이 밝았느냐 (평시조)
	금성	청산리 벽계수야
	두산	청산리 벽계수야
	비상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세광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음악과	동창이 밝았느냐
	천재1	북천이 맑다커늘
	천재2	동창이 밝았느냐
	태성	동창이 밝았느냐
	현대	동창이 밝았느냐
손으로 가락선을 따라 그리며 시조의 초장을 따라 불러보자.	금성	청산리 벽계수야
	미래	청산리 벽계수야
	세광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지학사	동창이 밝았느냐 평시조
	천재2	동창이 밝았느냐
	태성	동창이 밝았느냐
	현대	동창이 밝았느냐

<표-20> 시조장르 활동부분의 경우, 17종 음악 교과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활동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조 부분에서는 “5박과 8박 장단에 맞춰 불러보자.”와 “손으로 가락선을 따라 그리며 시조의 초장을 따라 불러보자.”, “시조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시김새를 연습하여 초장을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5박과 8박 장단에 맞춰 불러보자.”와 “손으로 가락선을 따라 그리며 시조의 초장을 따라 불러보자.”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시조 동창이>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금성출판사와 비상교육에는 <청산리 벽계수야>에 구성되어 있었다. “시조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시김새를 연습하여 초장을 불러보자.”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시조 동창이>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금성출판사와 비상교육의 경우 <청산리 벽계수야>, 천재교육에서는 <북천이 맑다컸>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9> 시조의 기본 장단 활동

활동 2 시조의 5박 장단과 8박 장단을 무릎장단으로 치면서 불러 보자.

5박 장단: ① | | | | |

부호: ① | | | | |

구름: 덩 | 덕 | 쿵 | 덕

8박 장단: ① | | | | | | | |

부호: ① | | | | | | | |

구름: 덩 | 덕 | 쿵 | | 쿵 | 덕 | 쿵

(주)지학사의 경우, 시조의 기본 장단인 5박과 8박 장단을 치면서 불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학사와 두산동아,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도 (주)지학사와 같이 기본적인 구성으로 장단과 부호, 구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해를 돕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그림-9).

<그림-10> 시조의 기본 장단과 가락선 활동

■ 시조의 5박, 8박 장단을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연습해 보자.

5박 장단	8박 장단
구음: 덩 덕 쿵 덕	구음: 덩 덕 쿵 쿵 덕 쿵
부호: ① ○	부호: ① ○ ○ ○
무릎장단: ① ⊗ ○	무릎장단: ① ⊗ ○ ⊗ ○ ○

★ ⊗ 은 왼손 검지로 왼쪽 무릎을 짚는다.

■ 무릎장단을 치면서 시조의 초장을 듣고, 가락선 악보를 보며 따라 불러 보자.

	1	2	3	4	5	6	7	8	
林仲黃	동치 ————— 이이								5박
	①	⊗		○					
林仲黃	박어 —————		쓰	느	냐				8박
	①	⊗		○	⊗	○		○	
林仲黃	노고 —————		호 —————		지이 —————		리히		8박
	①	⊗		○	⊗	○		○	
林仲黃	우지 —————		이	지인					5박
	①	⊗		○					
林仲黃	다 —————								8박
	①	⊗		○	⊗	○		○	

세광출판사의 경우, 기본적인 시조의 5박과 8박으로 장단의 구음과 부호, 무릎장단까지 먼저 훑어본 뒤, 그 학습을 바탕으로 ‘무릎장단을 치면서 시조의

초장을 듣고, 가락선 악보를 보며 따라 불러보자.’로 활동에 명시되어 5박과 8박, 무릎장단과 부호, 추가적으로 음 높이까지 함께 구성하여 한 눈에 보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그림-10). 그리고 ‘알고가기’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림-11> 무릎장단의 방법 사진으로 제시

활동 4 평시조의 초장을 무릎장단으로 기본박을 짚으면서 시김새를 살려 노래해 보자.

덩	짚고	덕	쿵	덕
⊕	⊗		○	
양손으로 무릎을 친다.	왼손 둘째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짚는다.	오른손은 무릎을 치고 왼손은 시김새를 표현한다.	왼손으로 무릎을 친다.	오른손으로 무릎을 치고 난 후 양손을 올린다.

박	1	2	3	4	5	1	2	3	4	5	6	7	8
장단	⊕	⊗		○		⊕	⊗		○	⊗	○		○
林 仲 黃	동차— — — — — 이— — — — —					안— — — — — 쓰— — — — — 냐— — — — —							

시조의 3·3·3 법칙

- 3장 형식
- 중장 마지막 세 글자 생략
- 3음 구성(黃, 仲, 林)

박	1	2	3	4	5	6	7	8
장단	⊕	⊗		○	⊗	○		○
林 仲 黃	노고— — — — — 지— — — — — 이							

박	1	2	3	4	5	1	2	3	4	5	6	7	8
장단	⊕	⊗		○		⊕	⊗		○	⊗	○		○
林 仲 黃	지— — — — — 지— — — — —					우— — — — — 닐— — — — — 다 — — — — — △							

※ 시조시는 한 글자를 가지고 3박, 5박 이상을 끌어 가는 것이 많아 모음의 변화에 따른 음악적 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출판 태성의 경우에는 시조의 기본 장단을 먼저 익힌 후, 무릎장단을 사진으로 상세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박과 장단, 음높이와 가사가 함께 제시되어 노래를 장단에 맞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그림-11).

<표-21> 교과서의 판소리장르 활동에 의한 분석내용

활동	출판사	곡명	
판소리 특징에 맞게 발림과 발성을 함께 불러보자.	교학1	“춘향가” 중 ‘사랑가’	
	교학2	자진 사랑가	
	두산	사랑가	
	미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비상		사랑가
			썩대머리
			화초장 타령
	세광	사랑가	
	천재2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태성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	
현대	자진사랑가		
장단의 세를 표현하거나 가락 선을 이용해 노래를 불러보자.	금성	화초장 타령	
	박영사	자진사랑가	
	비상		사랑가
			썩대머리
	성안당		사랑가
			판소리 “흥부가” 중 ‘화초장 타령’
	음악과	판소리 흥부가 중 ‘화초장’	
	중앙		판소리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
			판소리 ‘흥부가’ 중 돈과 살을 떨어내는 대목
	지학사	‘흥부가’ 중 비단 타령	
	천재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자진사랑가	
	천재2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태성	사철가	
현대	사철가		
	교학1	“춘향가” 중 ‘사랑가’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불러보자.	교학2	자진사랑가
	금성	비단타령
	미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성안당	사랑가
	세광	사랑가
	천재2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현대	화초장

<표-21> 판소리 장르 활동부분의 경우, 17종 음악 교과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활동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소리 부분에서는 “판소리 특징에 맞게 발림과 발성을 함께 불러보자.”와 “장단의 세를 표현하거나 가락 선을 이용해 노래를 불러보자.”,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판소리 부분의 경우, “판소리 특징에 맞게 발림과 발성을 함께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교학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비상교육, 세광출판사, 천재교과서에서 <사랑가>에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도서출판태성, 현대음악에는 <자진사랑가>에 구성되어 있었다. 비상교육에는 <사랑가>외에 <쑥대머리>, <화초장타령>에 추가적으로 더 구성되어 있었다. “장단의 세를 표현하거나 가락 선을 이용해 노래를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랑가>, <자진사랑가>, <화초장타령>에 구성되어 있었지만 중앙교육의 경우 <흥부가 중 돈과 살을 떨어내는 대목>에 구성되어 있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불러보자.” 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랑가>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금성출판사에는 <비단타령>, 현대음악에는 <화초장>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12> 판소리의 자세



(주)미래엔의 경우, 판소리의 발림 자세를 사진으로 삽입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발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그림-12). 그리고 악곡에도 발림을 하는 부분이나 그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고 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며 교학사에는 그림으로 판소리 부분이 (주)미래엔과 비슷한 구성으로 수록되어 노래 불러보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13> 악곡 속의 발림

자진모리

대 - 장군 방 별 목 허 - 고 삼 - 살 방 에 이 사 권 코
 힘을 주어 강하게 소리 낸다. 살짝 아래로 흘린다. 밀어서 소리 낸다. 힘을 주어 강하게 소리 낸다. 살짝 아래로 흘리듯이 소리 낸다.

오 - 구 방 에 다 집 을 짓 고 불 - 불 난 데 부 채 질
 밀어서 소리 낸다. 끌어 올리는 느낌으로 누아 채듯이 소리 낸다. (아) ... 주입새

호 박 에 다 말 툇 박 고 길 가 는 과 객 양 반
 깊게 떨어 준다. 뒤를 바로 끊어서 소리 낸다. 살짝 아래로 흘리듯이 소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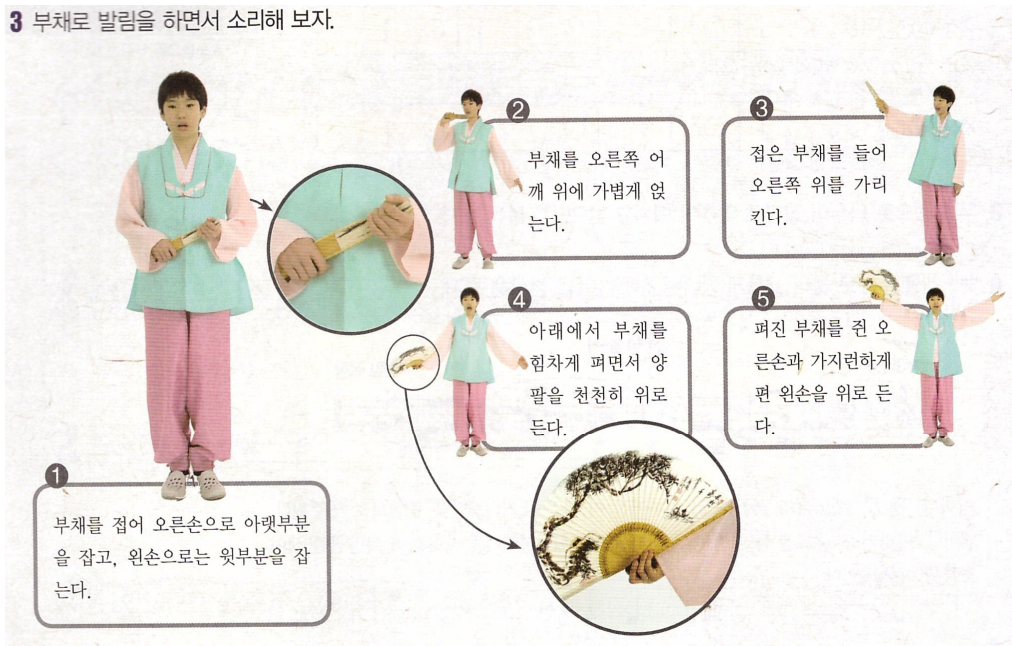
재 울 듯 이 불 들 었 다 해 가 - 지 면 내 어 쫓 고
 누아 채듯이 소리 낸다. 끊어서 강하게 소리 낸다.

오
 아래로 길게 늘여서 뻗는다. (얼쭉) ... 주입새

대장군방: 여러 가지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힘부로 일을 벌이지 않는 방향.
 삼살방: 이사를 할 때 나쁘다고 피하는 방향.
 오구방: 원래는 오귀방이며, 질병과 사고가 일어난다는 방향.

한편, <그림13>을 보았을 때, 분석요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와이비엠의 경우, 활동에 발림을 하며 노래 불러 보는 학습이 없는데도 악곡에 발림의 위치와 자세를 설명하여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보다 쉽게 불러 보면서 발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14> 발림하며 노래 부르기



(주)교학사의 경우, 미래엔 교과서와 같이 판소리의 발림 사진을 삽입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14). (주)교학사는 발림의 자세와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순서를 체계적인 구성으로 명확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아니리를 정간보에 수록하고 노래를 오선보에 제시하고 있다. 소리 북의 구조와 주법을 구성하고 있으며 판소리에 대한 설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교과서는 판소리를 보다 흥미롭게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림-15> 판소리의 구성요소와 발림

활동 3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창자, 고수, 청중)을 하며 불러 보자.

<판소리 3대 요소>
소리: 소리꾼이 하는 노래.
아나리: 소리꾼이 설명이나 대화로 표현하는 말.
발림: 소리꾼이 몸으로 표현하는 몸짓이나 손짓.

추임새: 고수 또는 청중이 소리 구절 끝에 '좋다', '일싸구' 등의 감탄사를 내면서 흥을 돋우는 것.

➔ 부채를 활용하여 음악적 구성에 알맞게 발림을 하며 불러 본다.

부채 펴기

부채 접기

한 손을 옆으로

양손을 옆으로

평가하기

-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한 대목을 듣고 따라 불렀는가?
- 판소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였는가?

➔ 소리에 알맞은 추임새를 넣어 소리판의 흥을 돋우어 본다.

<그림-15>의 두산동아의 경우, 활동에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창자, 고수, 청중)을 하며 불러보자.’와 ‘부채를 활용하여 음악적 구성에 알맞은 발림을 하며 불러 본다.’로 한 번 더 제시하고 있다. 그림으로 발림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으나 제재곡에는 발림의 부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소리 3대 요소와 추임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재곡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4. 분석결과 요약

표현영역의 국악 가창을 장르별로 활동을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가곡 장르의 활동에는 “10박 장단과 16박 장단을 쳐보고 장단에 맞추어 불러보자.”와 “가곡의 시김새를 살려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보를 보고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세광출판사, 음악과생활은 가곡의 16박 장단과 10박 장단을 부호를 함께 간략한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제재곡에 대한 설명과 가곡의 16박과 10박은 장단만 제시할 뿐 그에 대한 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서출판 태성의 경우, 가곡의 기본 장단과 부호, 음 높이, 가락 선을 함께 학습 할 수 있도록 표를 제시하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민요장르의 활동에서는 “지역의 특징에 맞게 장단에 맞추어 민요를 불러보자.”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시김새를 살려 민요를 불러보자.”, “메기고 받는 소리로 나누어 민요를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두산동아와 현대음악은 민요의 주요 음계와 특징을 간략하게 구성하고 있었으며 천재교과서의 경우, 활동에 ‘받는 소리에 나오는 시김새를 살려 풍부한 창법으로 노래 불러 보자.’로 언급만 할 뿐 시김새의 설명과 창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에 관한 학습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주)미래엔의 경우에는 민요의 주요 음인 떠는 음과 꺾는 음만을 제시할 뿐 제재곡의 지역적인 특징과 시김새에 대한 설명이 학습 활동에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박영사의 경우 학습활동에는 분석요소가 없었으나 학습 목표에 ‘시김새를 살려 구성지게 부를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었다. (주)박영사는 민요의 시김새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계적이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시김새를

넣었을 때와 시김새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다 다양하게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안당의 경우에는 색다른 각도로 시김새를 파도에 비유하여 민요의 특징을 보다 흥미로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도움말’이라는 부분에 지역의 특징이 간략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시조장르의 활동에서는 “5박과 8박 장단에 맞춰 불러보자.”와 “손으로 가락선을 따라 그리며 시조의 초장을 따라 불러보자.”, “시조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시김새를 연습하여 초장을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주)지학사의 경우에는 시조의 기본 장단을 제시하며 시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학사와 두산동아, 음악과 생활에서는 시조의 기본 장단과, 부호, 구음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시조에 대한 이해 부분의 설명이나 장단과 함께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세광출판사는 기본적인 시조의 5박과 8박으로 장단의 구음, 부호와 무릎장단까지 먼저 학습 한 뒤, 활동에 제시된 ‘무릎장단을 치면서 시조의 초장을 듣고, 가락선 악보를 보며 따라 불러 보자.’로 보다 쉽게 학습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었다. 도서출판 태성은 세광출판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무릎장단 자세의 사진까지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단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박과 장단, 음높이와 가사를 표로 만들었고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쉽게 불러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었다.

판소리 부분에서는 “판소리 특징에 맞게 발림과 발성을 함께 불러보자.”와 “장단의 세를 표현하거나 가락 선을 이용해 노래를 불러보자.”,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불러보자.”에 대한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주)미래엔은 판소리 자세에 대한 사진을 삽입하고 있었고 교학사의 경우, 판소리 자세를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

시하였다. 이 두 교과서는 비슷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발림 하며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진이나 그림만 제시해 놓았을 뿐 악곡에서의 발림 하는 부분은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두산동아는 ‘부채를 활용하여 음악적 구성에 알맞게 발림을 하며 불러본다.’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교학사와 같이 그림으로 발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와이비엠의 경우, 악곡에 발림의 자세와 발림을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보다 쉽게 발림을 하며 노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지만 활동에 ‘발림하며 노래 불러보자’로 제시된 것이 없어서 분석요소 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주)교학사의 경우에는 악곡에 발림의 위치는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발림의 자세와 순서를 사진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정간보와 오선보를 사용하여 판소리의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게 구성되어 있었다.

IV. 결론

이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17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국악 가창 부분에서 장르별로 국악곡 수를 비교하여 수록현황을 알아보고 국악 악곡의 다양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17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분석요소에 따라 국악교육의 적합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종 교과서의 국악 가창 장르별 악곡의 수는 가곡 24곡, 민요 218곡, 시조 15곡, 창작동요 96곡, 판소리 31곡으로 민요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민요의 편중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학사는 창작동요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주)교학사, (주)박영사, 성안당 3곳의 출판사는 시조를 다루지 않았으며, 비상교육은 창작동요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요의 지역별 악곡 수와 지역별 민요, 가곡, 시조, 창작동요, 판소리에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곡을 분류한 결과, 동부민요 65곡, 경기민요 54곡, 남도민요 44곡, 서도민요 30곡, 제주민요 25곡으로 동부민요에 편중현상이 보였다. 그리고 17종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지역별 민요의 악곡은 경기민요의 <한강수 타령> 11권, 남도민요의 <진도아리랑> 16권, 동부민요의 <옹헤야>와 <강원도 아리랑> 11권, 서도민요의 <몽금포타령> 13권, 제주민요의 <너영나영>이 13권으로 지역별 민요의 악곡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곡의 <남창 우조 동창이 밝았느냐> 12권, 시조의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8권, 창작국악의 <산도깨비> 9권, 판소리의 <사랑가>, <자진사랑가> 7권으로 가장 많이 수록 되어 있었다.

셋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17종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는 대체적으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러 보며 또는 발림을 하며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도록 국악 가창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주)미래엔과 천재교과서는 제재곡만 제시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특정한 장르에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창작동요 등 어느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민요에서도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기보다 여러 지역의 악곡을 포함하여 지역마다의 특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수록해야 한다.

둘째, 활동 부분에서 제재곡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다루어 국악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교과서에는 국악에 관한 학습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학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토대로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자세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마다 제목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동일한 제재곡은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 국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 경우, 악곡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재곡 제목은 반드시 통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안』. 서울: 우신기획, 2011.
- 권덕원 외. 『국악교육론』, 파주 : 교육과학사, 2009.
- 백대웅. 『국악용어 해설집』, 서울 : 도서출판 보고사, 2008
- 이성천. 『음악 교육총서-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하다』, 서울 : 풍남 , 1994.
—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 풍남, 2000.
-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제 3-108호.
- 장기범외. 『(주)미래엔 교과서 지도서』, 서울 : 미래엔, 2009.

【학술지】

- 국립국악원. 국악 성과지표 분석 연구: 국악교육 현황 및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 크리홍보(주), 201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국악,
서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논문】

- 김아름. (2009).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중학교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정. (2009).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은. (2006).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비교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미정. (2010).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내용 변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진주.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 (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선희. (2006). 중학교 9종 음악 교과서 국악 감상 영역의 비교 분석 및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영주. (2007). 제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연구: 초등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17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by 2009 Revised Curriculum

Lee, Seo A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ether 17 publishing middle school textbooks contain Korean traditional songs as is specifi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rough conducting comparative study. This study also aims at looking into whether educational activities cover Korean traditional music in accordance with analysis factors, providing appropriat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ategorized and analyzed Korean traditional songs by genre/ regional origin. Then, this study examined adequac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eaching Korean traditional songs according to reference standard.

First, the 17 textbooks included the highest number of folk songs. Then came creative children's songs, pansori (Korean traditional music), gakok (Korean lyric songs) and sijo (Korean poetic form organized by line and syllable count) in the books. The three publishers – Kyohaksa, Parkyoungsa and Sungandang – did not contain sijo while Gyohaksa.

Second, in terms of folk songs' regional origin, the text books had the highest number of 65 eastern province folk songs, followed by 44 southern province songs, 30 western province songs and 25 jeju folk

songs.

Third, under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17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put an emphasis on 'sigimsa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included Korean traditional songs, offering chances to sing a song with 'Jangdan' and 'Balim(gestures with hands)'.

Therefore, for more systemic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t should contain diverse coll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s, not disproportionably concentrating on certain genres. In addition, teachers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associating diverse subjects including social studies and science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making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more comprehensive in Korean feelings,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